



겨울의 시샘 광주·전남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흩날린 지난 2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거리에서 시민들이 봄을 시샘하는 눈을 피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3·1절 1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분포를 보이겠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생활 침해 우려 '전파법' 이대로 둘건가

전파관리소 불법 감청, 공익 내세운 국가기관의 월권

법조계 "전파감시 규정 악용"... 미래부 "영장주의 따를 것"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은 공익을 내세운 국가기관의 권위적 관행과 불감증, 관계 법령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전파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법원의 영장 없는 감청 내지는 검열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는데, 예외로 전파법에 '전파감시' 조문이 모호하게 규정되면서 국가기관이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 및 지역전파관리소의 전

파감시 업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전파법 제49조다. 이 조항은 혼신(混信)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파감시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전파의 품질 측정, 혼신 전파의 탐지, 무허가 전파의 탐지 등을 목적으로 전파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파질서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조계는 전파관리소의 전파탐지 내지는

정취로 통신 이용자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여지가 있는 만큼 탐지할 전파의 대상, 탐지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파법에 따른 전파감시 규정을 들어 수행하는 전파의 '탐지' 내지는 '측정' 업무에 수집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의 내용(대화) 및 영상을 수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특히 법령과 배치되는 예규나 매뉴얼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대전·강릉 지역 전파관리소가 수년째 이상 전파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사기도박단의 영상 및 대화를 실시간 중간 수집한 행위는 불법 감청이라

고 본 것이다. 전파관리소의 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감청은 권한 밖'이라고 시인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전파관리소의 사기도박단 영상 및 대화의 중간 수집은 권한과 범위가 정하는 범위 밖"이라면서 "공익 목적의 전파감시 업무라도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반드시 영장주의 통제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논란이나 불법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령과 예규를 정비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도 "문제가 제기된 만큼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독립 만세운동 재현·마라톤...광주 3·1절 행사 다채

제97주년 3·1절을 맞아 광주·전남에서 3·1만세운동 재현행사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 광주시는 1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열고 3·1절 기념예배, 광주 3·1만세운동 재현 행사, 태극기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기념식에 앞서 유정현 시장 등 광주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서구 상무공원 독립기념탑을 참배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노동훈 애국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민족정기 선양 등의 공로로 양노진(75), 김갑수(62), 서현기(61)씨가 각각 유공자로 선정돼 광주시장 표창을 받는다. 윤 시장은

기념식 뒤 5명의 생존 애국지사 중 이준수(91)옹 자택을 찾아 보은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광주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마라톤 동호인 등 3000여명이 참여한다. 또 수피아여중·고생 등 학생 700여명과 시민들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수피아여고와 광주공원 일원에서 97년 전 애국선열들의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한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광주시민 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광주공원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주관으로 광주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태극기로 본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전은 오는 7일까지 계속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도 지난 29일부터 2일까지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해양영토 순례를 진행중이다. 독립유공자 후손, 순직 해양경찰관 유족 등 70여명이 훈련함을 타고 여수를 출발, 독도까지 항하게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방통위, 역사왜곡 집중 단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1절을 맞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정보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들을 폄하·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다. 이번 조치는 3·1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을 전후로 특히 두드러지는 역사 왜곡 및 비하 정보가 인터넷에서 여과 없이 전파되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부정적 역사 인식을 심는 등 파급력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박용기기자 pboxe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2 해질 18:28 달출 00:18 달몰 11:10

내일부터 기온 풀려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다가 내일부터 풀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4/5	보성	맑음	-6/5
목포	맑음	-4/3	순천	맑음	-3/6
여수	맑음	-3/5	영광	차차 맑아짐	-7/4
나주	맑음	-7/6	진도	차차 맑아짐	-3/4
완도	맑음	-3/4	전주	맑음	-5/4
구례	맑음	-6/5	군산	맑음	-6/2
강진	맑음	-5/5	남원	맑음	-8/4
해남	맑음	-6/4	축산도	차차 맑아짐	-1/3
장성	맑음	-7/4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1.0~3.0	남서	0.5~1.5
남부	북서	2.0~3.0	남서	1.0~2.0
남해	북서	0.5~2.0	서	0.5~1.0
서부	북서	1.5~3.0	서	0.5~1.5
남부	북서	2.0~4.0	북서	1.0~2.5

◇생활지수

관심	계감온도
낮음	동파
높음	뇌졸중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32	11:42
	18:36	23:53
여수	밀물	썰물
	01:06	07:13
	13:16	19:24

◇주간 날씨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	☀	☀	☁	☀	☀	☀
-2/12	1/13	3/17	8/13	5/11	0/11	1/11

순천대, 면역결핍 형질전환 돼지 복제 성공

박광욱 교수팀 국내 첫...관련질환 치료제 개발 기대

국내 연구팀이 기존 돼지에서 면역 관련 유전자를 제거해 형질전환(形質轉換)된 돼지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순천대 박광욱 생명산업과학대 동물자원과학과 교수팀은 이기후 미국 버지니아주 연구팀 등과 공동으로 면역결핍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에 성공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형질전환 복제돼지는 그동안 있었지만 면역 유전자를 제거한 복제돼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연구팀은 지난 2014년 면역 관련 유전자인 'RAG' 유전자를 제거한 돼지를

처음 생산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맡긴 결과, 초기 면역 기전의 중요 역할을 하는 흉선의 발달이 완전히 억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T 세포', 'B 세포', 'NK 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돼지임을 확인했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연구팀은 돼지가 인간과 매우 유사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선천성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 질환의 치료용 약물시험과 면역세포 이식 시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주교육청, 유치원 교사 '시간외 수당' 감사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교사의 부당 행위와 관련, 노무법인의 감사 요청서가 접수돼 조사중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노무법인은 '병설유치원 교사 A씨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3개월간 정부의 유치원 평가를 준비하면서 시간의 근무를 했으며 수당을 받았지만 정작 B씨는 관련 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넘겼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노무법인은 해당 교사는 유치원 평가 업무 대신 자신의 사이버 연수를 받았고 문제를 제기한 해당 기간제 교사의 경우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해고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원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